

구원의 자격은 구세주가 될 때 갖추어진다

구세주 되는 방법 1 - 구세주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구세주 있다고 마음 먹기

23년간의 역사가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세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나온 철학이며 또한 마지막이 될 완성의 학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드는 학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는 철학, 구세주 되는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천기에 속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역사 육천년 이래 이와 같은 철학을 논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완성자만이 이러한 철학을 처음으로 논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하늘 나라의 지혜요, 하늘 나라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철학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남자를 붙이면 무엇이 되지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처럼 구세주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구세주가 있어야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는 완성자입니다. 완성자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되는 완성자 안에 들어가면 바로 완성자가 되게 되며 또

내 안에 완성자가 계시면 바로 내가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되는 방법 2 - 온전히 맡기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 역곡에 나와서 모든 식구들에게 말씀한 누구든지 내뭇처럼 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끝나는 것이며 온 인류가 하나가 되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세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구세주가 있으면 구세주가 되는 논리입니다. 어느 철학가가 이러한 학문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완성자인 구세주가 처음으로 가장 차원이 높은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알면 하나님이 안될 수가 없고 구세주가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 안에 있고 구세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승리자를 거치고 '또 이겼다'를 거처서 완성자가 된 다음,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고 마침내 그 다음에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것을 늘 고심하면서 밀실에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바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온전히 맡기다가 또 안 맡긴 것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맡긴다로 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온전히 맡겼다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가 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구세주 조희성님

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를 몽땅 짓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므로 내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밀실 안에서 이렇게 투쟁을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바로 나라는 의식이므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다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세주가 못된다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 3 -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 거하려면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구세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도로 사모하고 이제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 4 - 나의 모든 것은 구세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틀

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용하면 죄가 안되지만 이제 그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선 이게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쓰면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나하면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자연히 주님 안에 살게 되며 또 주님이 내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 5 - 모든 사람들 나와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온 인류에게 평화주기

이 사람이 영모님 때는 순종을 해야 구원이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엔 바로 이 사람이 나와서 누구든지 내 뭇처럼 여겨야 구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뭇처럼 여기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내가 없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같은 고로 온 인류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어 온 인류에게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고, 평화 회담을 하다가 또 전쟁을 하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구세주가 또 여러분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구세주가 나오, 내가 곧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23년간 구세주 혼자서 구세주 노릇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구세주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다름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는 생각을 함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구세주 자신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게 되니까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의 구세주가 되면 구세주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구세주 하나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구세주를 옥중에 집어넣지만 구세주가 많으면 하나 잡아놓으면 또 있고 또 하나 잡아놓으면 또 있고 구세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앞발 뒷발을 들까 안들까? 앞발 뒷발 모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12) 아브라함이란 '많은 백성의 아버지' (13)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

(12) 아브라함이란 '많은 백성의 아버지'

아브람이 9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가르침을 똑바로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하여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도록 하여라."

창세기 17장

1절: 나는 능동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란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에게는 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의 어머니가 될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사래에게는 한 사내아이를 낳도록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요드려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내 나이 100살이요, 아내 99살이 되는 늙은이들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하고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나는 이삭의 자손에게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거푸 다짐을 보여주시자, 아브라함은 문득 아버지 데라가 자신을 130세에 낳았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갖게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13)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

어느 여름날,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 있는 점심때였습니다. 오전 일찍 선전할 때에 종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아브라함은 부엌에서 점심식사를 마린하는 동안 고단한 몸을 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깜박 졸다가 눈을 뜨니 길손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는 걸음을 딱 멈추고 서는 것입니다. 저 먼발치에서 어떻게 내가 눈을 뜨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춰 설까?하고 아브라함은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운데 분명히 은혜자로부터 풍기는 기운과 똑같은 성스러움이 전달됨을 느꼈습니다.



천막 문에서 사라가 웃다 (창세기 18:9-15)

아브라함은 천막 문에서 얼른 달려 나가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수풀 근처에 서 있는 세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하는 천막 주변에도 상수리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그는 세 천사를 천막 옆 상수리나무 아래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빛진 자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시어 마옵시고, 이 종으로 물을 떠 오게 하여 세 천사께서 발을 씻으시고 천막 바로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창18:3-5)."하고 간곡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떡을 대접하겠다고 하니, 세 천사가

나누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는냐?"

"예, 지금 천막 안에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는 노아할아버지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율기시어 지금까지 셈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기한이 이를 때(사라가 아들 이삭을 잉태할 때, 또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쳐 순종할 때)에 셈 할아버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암시한 영적인 대화이기도 합니다(창18:10).

그 당시의 관습은 결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를 마주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생리가 끝나고 폐경기에 접어들어 사라는 천막 문에서 아브라함과 길손이 주고 받는 말을 듣고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굴을 붉히면서, '호호백발 늙은이가 어떻게 얘기를 낳는다고' 하고 나직이 중얼거리면서 마음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가려진 벽 너머로 사라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임신한다는 나의 말이 믿기지 않아 사라가 웃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



상수리나무 수풀에서 세 천사를 영접하다 (창 18:1)

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까지 사라 자신이 듣게 되자, 길손으로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벽 너머에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더."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하고 자애롭게 응대하셨습니다. 사라는 길손으로 소리 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히 웃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래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 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